

전남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특정업체 염두 '의혹'

일선 학교에 '마사토나 코르크 소재 트랙 권장' 안내문 논란 코르크 관련 업체 전국 한 곳뿐... "특정 소재 권장 아냐" 해명

전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향을 안내하면서 특정 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문구를 담은 공문을 내려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성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 운동장 125곳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374개 학교 607곳을 대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인조 잔디 166곳 중 20곳(12.0%)이 불합격했다. 탄성포장재(우레탄) 441곳 중 105개(23.8%) 시설도 불합격으로 판정났다.

도 교육청은 불합격 시설에 대해 출입통제와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리고 철거 후 흙 또는 천연잔디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 천연잔디로의 재조성 방안은 사실상 철회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성 전후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문제는 안내 공문에 운동장 트랙과 관련 '우레탄트랙 조성 불가, 마사토 및 코르크 소재 트랙을 권장함'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동장 조성에 대한 편향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친환경 소재가 있음에도 코르크 소재 트랙만을 권장한 것은 '특정 업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사실상 코르크(cork) 관련 업체가 전국에 단 한 곳에 불과해 독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사토(굵은 모래) 운동장의 경우 건조한 날씨 속 비산먼지가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면 흙 속 곰팡이가 배양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선 학교에서 꺼리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나 우레탄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교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예산 낭비가 많았는데, 또 다시 KS표준에 미달하는 운동장 시설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운동장 조성 방향을 안내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이 특정 업체나 특정 소재를 권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특정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겠다. 한 가지 소재에 국한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수요 집계기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문을 다시 내려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30일 오전 박상철(왼쪽) 총장과 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호남대 대학본부 앞뜰에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아들나무'(子木) 5그루를 심고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정이품송' 후계목, 호남대에 '등지'

5그루 분양반아 대학본부 앞뜰에

호남대학교가 30일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아들나무'(子木) 5그루를 대학 캠퍼스 분관 앞 정원에 심었다.

호남대는 지난 2월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정이품송 후계목 5그루를 분양받아 대학본부 앞뜰에 심었다.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인근에 있는 정이품송은 수령이 6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

히 조선시대 세조의 어가(御駕)가 지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가지들 들어 올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소나무다.

원뿔 모양으로 좌우 대칭이 잘 맞아 수려했던 정이품송은 그간 병충해, 태풍, 폭설 등으로 가지가 꺾이는 등 기존 늑대한 형태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이에 보은군은 지난 2008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 숭방술을 채취, 대(代)를 이을 후계목 재배에 나섰다.

후계목 재배는 도난·헬륨 보전 등 문제로 10여년간 비밀리에 진행됐다. 지난 2010년부터 기

르기 시작한 후계목은 올 초 세상에 나와 민간·공공기관에 모두 100그루를 분양했다.

호남대 캠퍼스에 심은 정이품송 어린 나무들은 2014년생이다. 키는 2.5~3m, 밑동 지름은 6~8cm다. 보은군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담긴 '헬륨 인증서도 함께 받았다.'

박상철 총장은 "정이품송의 명맥을 잇고, 호남대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명품' 인공지능 융합인재로 키워내겠다는 대학의 비전과 의지를 담아 정이품송 후계목을 캠퍼스에 심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 사립유치원, 시교육청 감사처분 이행 '원활'

회계 투명성 등과 관련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이 감사 처분을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유치원을 운영한 73곳을 적발했다.

이에 이들 사립유치원에 해당 관계자 견책, 정직, 해임 등 신분상 처분과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

반납 등 재정상 처분을 했다.

73곳 유치원 모두 신분상 처분을 이행했다. 재정상 처분의 경우 67곳은 이행을 완료했고, 5곳은 이행 중이다. 나머지 1곳만이 유치원을 무단 폐원해 현재 재정상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원 2심 재판부가 교육청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은 정당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조선대학교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사업은 다국적 청소년 간 교류활동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는 '지역 내 산업과 연계'를 통한 국제적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인 학생 20명, 외국인 학생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한다.

조선대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를 국가별 비즈니스 특성 공유 및 지역 내 산업과 연계를 통해 차세대 유망 직종을 탐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6월 말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7월부터 국가별 팀 활동, 주제 관련 명사 특강, 지역 에너지 및 첨단산업 기업 탐방 등이 진행된다.

조선대 손오기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의 주도적인 교류활동을 진행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내가 받을 복지서비스는

광주 서구, 안내서 발간

광주 서구가 생애주기별, 지원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내용을 한 권에 담은 복지서비스 안내서 '서구에서 나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출생에서부터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까지 총 184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실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발간된 책자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스트 이사회, 김기선 총장 사임 의결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가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최근 노조와 갈등 속에 사퇴 반복 논란까지 일어 세간의 구설에 오른 김기선 총장에 대한 사임을 결정했다.

지스트는 이날 오전 원내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리더십 부재 등으로 구설에 오른 김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장시간의 고민 끝에 김 총장에 대한 사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스트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

함,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교육부 소속 등의 당연직과 기업체 임원 등의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기선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총장 위상에 걸맞지 않게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김 총장이 전 직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5.20점을 받은 만큼 총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될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총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